"남북이 대선사 뜻 새겨 화엄세상 열어야"



탄허대선사 시봉이야기

원행 지음/에세이스트 펴냄/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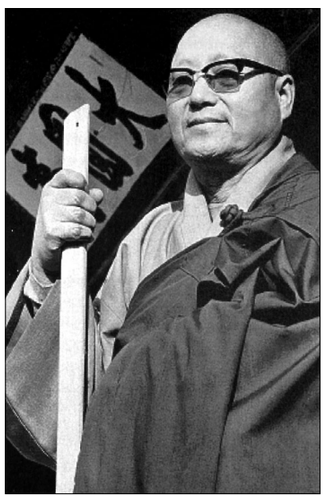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배고프면 쌀없는 밥을 먹고 목마르면 젖지 않는 물을 마시고 허공 꽃 불사를 짓는다"(탄허 대선사 게송)

저자 원행 스님(월정사 부주지)은 탄허 대선사(사진 위)를 오랜 세월 가장 지근거리에서 시봉했다. 이 책은 대선사의 일상적 수행의 모습을 가감 없이 소박하게 진술함으로써 신도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친근감을 더해 주면서 수행승 이전에 학자이며 선각자로서의 탄허 대선사를 집중 조명한다. 탄허 스님은 44년 전에 이미 예언한 바 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서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적 국위를 선양할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문화는 다른 모든 국가들의 귀감이 될 것이다"라고.

2018년 평창올림픽이 개최된 뒤 놀랍게도 세계인들의 시선은 지금 우리에게 집중돼 있다. 이 평화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은 탄허 대선사가 주석하며 〈화엄경〉 역경 사업에 온 생애를 바친 신령한 땅, 강원도 평창이라는 점도 매우 놀랍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정신적 중심국이 될 것이며,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해 세계의 윤리적 모범이 되리라는 탄허 대선사의 예언은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이미 코앞에 당도해 있다.

4월 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



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에서 악수를 나눈 뒤 나란히 남한 땅을 밟고 또 손잡고 북한 땅으로 한걸음을 내디뎠다. 실시간 방송되는 그 순간을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이 모두 지켜봤다.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그 순간, 이미 통일은 마음속에서 이뤄졌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 원행 스님은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의 정

탄허 스님 일생과 사상 등 조명
소박한 수행모습 가감없이 담아

세를 우리는 어떻게 선도해갈 것인가에 대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는 이제 탄허 대선사가 일찍이 설하신 통일을 공부할 때라고 말한다. "통일이란 분할되어 있던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 또는 체제나 체계 아래로 결집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얘기지요. 그러나 가만히 세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통일은 거의가 무력에 의한 약육강식의 형태를 띱니다. 화엄의 세계에선 그런 통일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물사물이 중중무진 연기되어 상즉상입하며 원융무애하기에 서로 개체성을 가지면서도 전체로서 조화로운 세계가 화엄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선 모든 존재를 선악, 우열, 미추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세계와 우주는 한덩어리 생명체입니다. 미워서 윽박지르고 나쁘다고 잘라버리고 못났다고 죽여버리는 것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 내 모든 존재를 자기의 확장으로 보는 것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책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제 1장에서 6장까지는 탄허대선사의 예언 및 일화, 인연담 등이 소개된다. 이어 7장은 저자 원행 스님이 2016년부터 강원일보와 도민신문에 게재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 되게 하자는 취지의 국민과 위정자에게 올린 간곡한 청원의 글들이 수록돼 있다. 마지막 8장은 탄허 스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엮어진 대담을 실어 놓았다.

특히 본지 발행인인 대행 선사와의 각별한 인연을 묘사한 제 4장 '한마음 선원 대행 스님과의 인연' 편은 주목을 끈다. 저자 원행 스님은 "탄허대선사와 대행 스님의 인연이 얼마나 각별했냐 하면 큰 스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그 분을 존경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분을 비구니로 보아서는 안되고 사숙으로 불러야 한다고 이르실 정도였다"고 회고한다. 이어 저자 원행 스님은 "탄허 대선사께서는 유무(有無)를 종횡무진 넘나드는 대행 스님의 수행 세계에 탄복하며 사형사제의 지극한 예로서 대했다"고 덧붙였다.

저자 원행 스님은 마지막으로 "역사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씨줄과 날줄로 촘촘히 엮어서 역사를 이룹니다. 과거 없는 현재나 현재 없는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보는 것이 바로 역사의 인연법입니다. 탄허 대선사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들을 현재와 미래의 큰 경책으로 삼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며, 더불어 이 책은 내 자신에게 던지는 자경입니다"라고 책을 쓴 취지를 밝힌다.

▲저자 **원행 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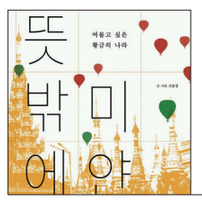
불교 경전과 염불 소리에 이끌려 약관의 나이에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해 한암 스님, 탄허 스님, 만화 스님의 법통을 이어받아 수행 정진했다.

불교종단 분규와 비구 · 대처 불교 분규와 10 · 27 불교법난, 월정사 분규 사태 등으로 몸과 마음을 크게 다쳤다. 오대산의 큰 별, 탄허 스님과 은사 만화 스님이 열반하시자 49재를 모신 다음, 제 2의 출가로 가야산 해인사로 가서 성철 스님 문하에서 팔만대장경 장주 소임을 맡고 있던 어느 날, 꿈에 탄허 스님의 벼락같은 현몽이 있고 그것을 받들어 대전 자광사로 가서 중창불사하고, 다시 월정사로 돌아와 부주지 소임을 겸하며 동해시 삼화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을 때 운명적으로 삼화사 노사나철불을 친견했다. 이후 원주 치악산 구룡사 주지로 부임해 원주불교대학을 개설하고, 경찰불자들을 위하여 원주경찰서 경승실을 새롭게 장엄하는 등 대중 포교에 힘썼다.

10. 27불교법난 피해자 대표이며, 박근혜 정부의 출범 1년 뒤 조계종 1012인을 대표해 시국선언문을 낭독한 바 있다.

저서로는 〈월정사 멍청이〉 〈월정사 탑돌이〉 〈10.27불교법난〉 〈눈썹돌리는 소리〉 〈만화희찬스님 시봉이야기〉 등이 있다.

머물고 싶은 황금의 나라 미얀마



뜻밖의 미얀마

글 사진 조용경/메디치 펴냄/1만 6천원

전 포스코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조용경의 미얀마 여행기다. 저자는 뜻밖에 '미얀마의 매력'에 반한다. 마치 우연히 사랑에 빠지듯. 처음에 미얀마에 간 이유는 일 때문이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또 가고 싶어졌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빠뜨리지 않고 알고 싶듯, 미얀마의 모든 것이 궁금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미얀마로 떠났고, 짬을 내어 공부했다. 이 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4년간 16차례 미얀마 구석구석을 누비며 기록한 결과물이자 짝사랑 일지다.

신간 〈뜻밖에 미얀마〉는 저자가 열정을 다한 여행과 공부의 결과이다. 국내외를 망라해 자료를 섭렵했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인연을 맺은 미얀마인 가이드에게 수십 차례 이메일을 보내 물어보았다. 또한 농업관개부 장관을 만나 미얀마 농민 실상을 직접 듣기도 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 사진을 본 후 그곳이 외국인 출입이 금지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준비해서 오지 여행을 떠났으며, 카메라를 들고 미얀마인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렇게 찍은 사진이 3000장이 넘었다. 이 책에는 작가가 발견한 흥미로운 미얀마 역사에서부터, 문화, 정치에 이르기까지 '미얀마의 거의 모든 것'을 담았다. 또한, 미얀마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수천 장의 사진 중에 137장의 사진을 엄선했다.

이 책은 미얀마 여행을 준비 중이거나 새로운 여행지를 탐색 중인 여행자에게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다. 미얀마는 스스로를 '황금의 나라, 미얀마'라 일컫는다. 처음 미얀마를 찾았을 당시 저자는 그 말을 비웃었다고 한다. "쥐뿔도 없는 나라가…" 하며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미얀마를 무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무엇이 저자를 사로잡았을까?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분쟁이 있어 이 지역 여행이 쉽지 않았을뿐더러, 일인당 국민소득 1200달러 정도의 가난한 나라지만 미얀마인들의 때묻지 않는 순수한 미소와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만나면 만날수록 저자의 닫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40개국 이상의 나라를 여행해본 저자이지만, 이처럼 따뜻한 경험을 한 나라는 처음이라고 고백한다.

마음을 열고 미얀마를 바라보니 그 문화 수준이 높을뿐더러 이타심이 강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로 미얀마는 최빈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부 인구 1위를 차지한다. 또한 미얀마는 매번 다른 풍경을 선물했다. 계절마다 다른 하늘색, 알록달록한 의상들, 황금빛으로 빛나는 파고다, 일출과 일몰 때 지상의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여 놓는 태양,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신비로운 고대의 유물과 유적들…. 미얀마 여행을 하면 할수록 사고방식이 자유로워졌고, 삶의 희열을 느끼는 농도가 진해졌다.

이제는 미얀마 여행의 불편함마저 여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여유도 생겼다. 미얀마에 도착한 첫날이면 미얀마의 전통 국수, 모힝가를 한 그릇 뚝딱 해치우며 여행을 시작한다. 미얀마에서 모든 시간은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밥보다 여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작가는, 더 이상 다음 여행을 어디로 갈지 고민하지 않는다. 아직도 더 알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미얀마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일년에 절반쯤 살고 싶을' 정도로 미얀마가 좋다.

4년간 16번 여행, 3000장 사진
미얀마에서 깨달은 행복의 의미
균형된 시각으로 본 미얀마 민낯

가난하지만 서로 상부상조하고,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줄 알며, 낯선 외국인에게 순박한 미소로 반갑게 인사하는 미얀마 사람들. 그들에게서 마음의 풍요란 무엇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배웠다.

이 책에는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미얀마의 거의 모든 곳이 소개돼 있다. 미얀마 문화와 역사에 깃든 불교와 미얀마 여행의 에티켓서 시작해서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양곤과 네피도, 미얀마의 오랜 문화가 깃든 만달레이와 불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바간은 빛나는 미얀마를 소개한다. 이어 소박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낭만을 선사하는 인레호수, 라카인 주를 중심으로 한 미얀마의 고대 도시들과 신실한 신앙으로 가득한 몬주와 카인주의 주요 포인트까지 펼쳐 보이며, 미얀마의 성속을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곳곳을 다니며 찍은 3천여 장 사진 속에서 골라낸 137장의 사진은 마치 직접 미얀마 현지를 경험한 듯한 느낌을 줄 만큼 상세하다.

이 책은 다른 여행서와 달리 해당 여행지의 아름다운 모습만 말하지 않는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미얀마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미얀마는 1960년대 아시아서 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잘 살던 나라였다. 하지만 지금은 최빈국이 되었다. 또한 시간이 멈춘 나라에서 아시아의 떠오르는 별이라는 새로운 별칭을 얻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960년대 미얀마는 아시아권에서 일본, 필리핀 다음으로 잘사는 나라였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 쌀을 원조해 주었다. 60대 이후 사람들이 기억하는 '안남미'가 바로 미얀마의 쌀이다. 하지만 미얀마는 여전히 1960년대의 모습을 유지한다. 지난 50여 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미얀마의 근현대사를 알아야 한다. 작가는 이 책의 〈닫는 글〉에서 '아웅 산, 네 윈, 아웅 산 수지', 이 세 인물을 통해 독자들이 미얀마의 사회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한편 2012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얀마가 강력한 개혁에 성공한다면 아시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아시아의 떠오르는 별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50여 년간의 군사독재와 고립적 사회주의의 고리를 끊고 개방화의 길로 들어섰기에 '떠오르는 아시아의 별'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별은 미얀마의 풍부한 자원을 의미 한다. 미얀마에는 금, 옥 등 각종 보석이 풍부하며,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콩, 티크 목재 수출국이다. 20세기 초, 왜 영국과 일본이 미얀마를 차지하기 위해 국운을 건 전쟁을 벌였는지, 자주독립을 위해 미얀마는 어떤 운동을 벌였는지, 이 책을 통해 미얀마의 뜻깊은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에는 이뿐만 아니라 미얀마인들의 전통 옷, 전통 화장품, 국민 음식, 각양각색 파고다의 유래와 설명까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뻔한 동남아 여행에 지루함을 느꼈다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새로운 시장을 알아내고 싶다면, 다시 떠오르는 미얀마에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뜻밖에 미얀마'에 반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미얀마 여행을 통해 새롭게 보고 느낀 점을 4년간 꾸준히 자신의 블로그에 기록했다. 연재를 이어가자 블로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 단체의 요청으로 '미얀마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기회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었다.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수차례 미얀마 여행을 했다. 은퇴 후 잠시 주춤했던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찾은 것이다.

김주일 기자

www.shcandle.com



자연과 건강을 생각하는 삼환양초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식물성양초 : 팜유 원료의 자연주의 캔들, 그을음이 적고 연소시간이 파라핀 양초보다 깁니다.



■ 밀납양초



: 토종 한봉 밀납만 사용한 자연 그대로의 색과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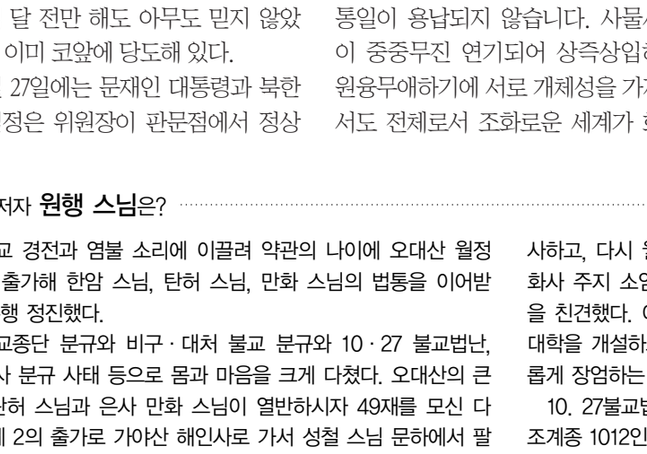
■ 약쑥양초



: 특유의 향과 탈취 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연꽃소이양초

: 자연친화적이며 은은한 연꽃향이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연꽃향



장·단 / 대바라

강화(사자발)약쑥향



장·단 / 대바라

향나무향



장·단 / 대바라

우창산업 삼환양초는 1993년부터 양초를 생산해왔고 2대째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믿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환양초 (우창산업) 농협 221133-51-020122 (예금주 : 장경분) 소비자무료전화 : 080-0766-8888 상담문의 031)766-0242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